<문석영 동료지원가 국정감사 참고인 진술 전문>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문석영입니다. 저는 시설에서 25년동안 살았고, 일을 하며 자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일은 저의 3번째 직업입니다. 22년 4월부터 동료지원가로 일했는데, 동료지원가 사업의 24년도 예산이 0원이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동료지원가로 일하기 전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같이 일하던 이모들이 저를 부려먹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친절하게 말도 걸었지만 사람들은 제가 못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화를 내고 혼내서 저는 늘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말할 사람이 없었고,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제가 쓸모 없는 사람인것처럼 느껴졌지만, 정신력으로 10년을 버티며 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일해본 경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해보니 동료지원가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료지원가들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취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중증장애인을 만납니다. 발달장애인이 모여있는 평생교육센터에 찾아가 참여자인 동료들을 몇 년간 만나기도 하고, 저 같이 일을 하다 쓸모없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 동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제가 이전의 직장에서 겪었던 왕따, 무시, 괴롭힘, 외로움을 버티며 견뎠던 시간을 참여자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일할 수 있다는 용기를 이야기 합니다. 나를 피하던 참여자가 눈을 마주쳐 주며 웃거나, 고맙다고 나도 한 번 일해보겠다고 말할 때, 같이 일자리를 찾아볼 때 저는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자 신청서에 '취업 희망'을 체크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저 문석영은 요즘 동료지원가로 일해서 행복하고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저희가 동료지원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봐주세요. 실적이 낮다고 생각하면 실적을 높일 수 있게 함께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싫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과 헤어지기 싫어요. 금쪽 같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절대 폐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지원가로 일하면서 뼈를 묻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석영 활동가의 국정감사 후기 영상 보기(아래 링크 클릭)!

https://drive.google.com/file/d/19YuMsnn33GoG1YGmv1nrf-B5TYRLjYho/view?usp=share_link

<박경인 동료지원가 진술 전문>

저는 동료지원가 박경인입니다.

동료지원가 사업이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187명 동료지원가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슬프고 절망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저희에게 복지일자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동료지원가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름 대신 '정신지체'나 '지적장애'나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때 저는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았고, 늘 외로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지원가로 일하면서
저는 제가 그냥 박경인으로 살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지원가는 그냥 취업만 연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다고 희망을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꾸만 사업 실적이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만 받는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명함과 직업을 가진 박경인으로 일하는 것이 진짜 성과아닌가요?

기획재정부는 동료지원가인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란걸 인정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시설에 가라면 가고,
일하라면 하고, 일자리를 안 주면 수급비나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내 삶을 꽉 쥐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추경호 장관님,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돌려놔 주세요.

저는 동료지원가 박경인입니다.